

12장 세계시장과 금융적 축적체제 II

(1교시)

▲ 1968년 혁명의 원인과 그 결과로서의 금융자본화

1968년 혁명의 주체

→ 케인즈주의가 노동자들에게 일정 부분, 복지를 허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보장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가사노동을 하는 여성, 아동, 학생, 실업자들...

케인즈주의의 사회안전망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이 68혁명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함.

68년 혁명의 진행과정과 그에 따른 영향

① 낭테르 분교에서 교육개혁을 부르짖었던 학생들에 의해 시작 → 전 세계로 확산 (이들은 노동거부를 슬로건으로 내세움)

* 주류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혜택들은 비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그들의 헤게모니에서 나왔는데, 이 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자본가들은 주류노동자들이 체제를 안정시키는데에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

② 산업자본가들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화 작업을 시작한다.

1-1968년 혁명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급성장

일반 자본가들은 은행을 이용하였고, 큰 규모의 자본가들은 이 당시의 세계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던 IMF에 투기. (IMF는 1968년 혁명의 여파로 생산현장에서 떠난 도피성 자금이 모여면서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된다.)

2- 노동자들의 봉기를 봉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석유가격 인상

1973,4년도에는 중동의 OPEC 국가들이 세계 자본가들의 협약에 의해 석유대금을 올리는 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생필품 가격의 폭등 등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석유값 폭등은 체제 안정을 위한 무기로 작용한다.)

석유 국가들의 자본가들은 일시적으로 몰린 거대한 자금을 국제통화기금IMF에 보내어 국제 금융기금을 조성, 그들만의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

바로 이러한 계산된 사건들이 IMF가 1970년대 이후에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한 주 원인임.

인상된 석유가격에서 나온 화폐를 통해서 세계 전체의 자본량이 소수의 수중으로 극단적으로 집중.

③ 산업자본의 금융자본화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 : 1997년의 한국의 외환위기

이렇게 조성된 거대 자본은 투자할 곳을 찾다가 막 자본주의화 되기 시작한 남아메리카 및 아시아로 몰리기 시작한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라고 부르는 신흥공업국 창출

통화주의의 화폐가 가지는 하나의 기능인 신용을 통해서 금융자본이 행사하는 것은 명령이었다.

→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임금인상에 성공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게 되면 임금인상은 아무런 효용을 갖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통화주의 정책**의 일면

1- 1980년대 초 멕시코의 경제위기

미국은 사회주의화 된 쿠바로부터의 안전기지로써 멕시코를 활용한다.(자본의 집중투자가 이루어짐)

1980년대 초에 달러화 금리를 인상하면서 멕시코에 투자되었던 자본들이 전부 미국으로 빠져 나온다. 결국 멕시코는 **모라토리움(moratorium_채무이행의 불가능함을 국가 공권력으로 선언)**을 선언하게 된다.

2- 금융자본화의 특성상 이미 예고되어 있던 아시아의 금융위기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태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을 경유, 브라질, 러시아까지 확대된 20세기 말 최대의 금융위기

원인

정책적으로 아시아 신흥공업국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노동자로 전환. 국내도 마찬가지임.
2,30년 동안 열심히 일해 온 **국내노동자들의 대규모 조직화** → **임금인상요구**가 증폭 → 정책적으로 **노동법 개악**이 시도 → **반만 성공함** → 미국의 IT 산업이 호황을 맞아 자금수요가 매우 활발한 상황과 국내의 이러한 현실이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한국에 투자되었던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이동 → 국제통화기금IMF의 차환 거부 → 김대중 정부의 개혁문서 제출(재벌개혁을 포함하여 자본가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정리해고가 가능한 노동법 개정이 포함)

▲금융자본의 특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잉여가치에서 비롯된 **금융자본**은 생산자본을 순환시키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일종의 **투기자본**으로서 이자가 안정적으로 나올 때는 머물지만 이자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떠나버리는 **첼새자금**의 성격을 띤다.

아시아와 남미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IMF와 IBRD에 일종의 투기자본에서 비롯.

신흥공업국에서 IMF체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증폭되면서 자본가들을 압박했을 때, IMF체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러한 금융위기는 **금융자본을 통하여 다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부르주아 중심의 시장체제를 재편성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음.

※ 참고서적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위너 본펠드·존 홀러웨이 저)

1968년과 결부된 금세기 두 번째로 큰 투쟁의 파도는 신용 확장에 갇힌 자금을 부여했다. 그 시기의 반란은, 금세기 초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는 폭력적 진압을 통해 봉쇄되었지만, 훨씬 더 큰 정도로 신용의 확장을 통해 봉쇄되었다. 이 때문에, '1968'의 결과는 덜 극적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측면에서는 금세기 초의 반란들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것이었다. 통화 체제와 생산성 비율 사이의 위태로운 관계는, 1971년에 브레튼 우즈의 붕괴 속에 반영되었다시피, 더욱더 근본적으로 파괴되었다.

1960년대 말의 투쟁은, 자본이 더 이상 공장에서의 노동력에 대한 직접적 통제에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노동 생산력의 착취는 저하된 이윤율에 직면했다. 노동 착취는, 사회적 노동력에 필요 노동을 부과하는 자본의 능력이 매우 제한됨에 따라 너무 비싸게 되었다. 게다가, 노동의 파괴적 권력은 1960년대 말에 노동 강화에 반대하는 저항 속에서, 그리고 임금 인하하려는 시도들(소득 정책들)에 반대하는 저항 속에서 감지되었다. 달리 말해, 노동자 계급은 더 이상 그 자신을, 어떤 한계를 넘어 착취되도록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자본은 이에 공장을 도피시키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구적 화폐 자본의 극적이고 유례없는 증가는 잉여 노동의 구성적 측면인 필요 노동의 축소와 짝을 이루지 않았다. 달리 말해, 자본은 공장에서 노동력의 상응하는 착취 없이 화폐 형태 속에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자본은 생산의 느린 속도와 더러운 장소를 '망각한' 것처럼 보였다. 자본은 깨끗하게 되기 위해 애썼다. 금융적 투자 속에서 훨씬 더 쉽게 이윤이 산출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자'의 강탈은 금융적 반인플레이션적 정책들을 통해 국가에 의해 촉진되었다. 자기 자신을 착취의 경합 지대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그리고 화폐 자본이라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 속에서 그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그 자신을 넘어서려는 자본의 시도는 노동의 불복종의 권력을 나타낸다. 그것은 또 노동의 봉쇄의 허구적 성격을 나타낸다. 화폐적 축적은 실제로는 '비고용' 자본, 즉 공장을 떠나 미래의 노동 착취에 내기를 거는 것에서 화폐를 벌어들이는 자본의 축적이었다. 달리 말해, 축적의 투기적 차원과 노동의 불복종의 권력은 같은 호두열매의 두 부분이다.

(2교시)

다중의 세대적 착취 및 자기 착취의 세계모니화: 연기금의 금융자본화

▲ 금리의 문제

모든 금융자본은 금리의 안정성을 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유입.

금리의 안정성이란 양의 안정금리(3~5%의 플러스 안정금리)를 뜻함.

IMF의 경우에도 세계의 금리가 안정되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양의 안정금리를 보장해 줄 것을 각 나라에 요구.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3% 이하의 금리에 대해서는 자본을 도로 빼내어 가는데, 이것은 바로 사회의 모든 경제현상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함.

▲ 금융자본의 소비자 (금융자본에게 플러스 안정금리를 약속해 주고 있는 나라들)

서유럽의 국가들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아주 오랫동안 펼쳤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부담이 큰 상태.

IMF의 주 고객.

미국, 제3세계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 아르헨티나(2000년 모라토리움 선언)와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갚지 못해서 국가부도에 다 다르게 되었음.

▲ 금융자본의 공급자

일차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

→ 큰 손과 개미군단으로 나누어 지는데, 새로운 유형에 투자자가 등장한다. 다른 아닌 기관 투자자

예> 보험회사와 기금공단...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기관들은 이 돈을 유용하여서 주식에다가 투자.

▲ 기관의 금융자본 투자가 갖는 의미

금융자본가는 기관투자자와 큰 손을 지칭. 현재는 기관투자자의 투자액이 제일 높음.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노동자와 자본가를 적대 관계에 놓고 파악. 그러나 기관투자자들로 인해 그 구도가 조금씩 깨지는 상태.

→ 기관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금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노동자,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됨. 이른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착취하는 경우가 발생. 자기가 기관에 투자한 돈에 연연하여 금융자본가의 편에 서게 된다. 즉 노동자, 일반 서민들이 금융자본에 종속되는 기현상을 낳음.

※ 참고자료 『금융지배적인 세계적 축적 체제의 출현 _ 한국에 주는 충고』 (프랑소와 세네저)

“양(+)의 실질이자율은 자본화에 의한 연기금이 퇴직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제 금융시장은 소득분배 순환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보호되어야만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수천만의 일반인들이 노후를 위해 금융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